

# 학부·학과 구조조정 최소화 ‘느슨한 통합’ 추진 가능성

## 목포대·순천대 통합 ‘급물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남도와 교육부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 의대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 대학은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통합 대학의 운영 구조에 대한 교육부의 상호 의대 설치 방안 공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놓고 있지만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일단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은 순천대 총장, 김문수 국회의원 등 5명이 모여 대학 통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이상 앞으로 이들 대학 간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미 지난해 실무진이 만나 대학 통합과 관련 교육부에 협의할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학은 대학 구성원 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 대학의 틀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 대학 총장을 당분간 인정하고,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역시 최소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약대에 이어 국립 의대도 유지 경쟁한 목포대·순천대=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남도내 ‘유이한’ 국립대로, 서부권과 동부권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2011년에도 약대를 두고 유지 경쟁을 벌인 바 있으며, 국립 의대를 두고도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국립 의대 신설 건의에 대해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뒤 전남도가 곧바로 양 대학의 통합을 추진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통합은 불발됐고 이후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순천대가 과거 전남도의 용역 등을 문제 삼아 공모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전남도는 공모의 대, 공모 탈락 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순천대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목포대만 참여하는 공모를 끝까지 추진할 경우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고, 순천대 역시 공모 불참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전남도의 중재로 다시 통합 논의가 재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안이 통합 의대이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번 대학 통합을 통해 오랜 기간 자리해왔던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갈등·마찰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느슨한 통합 바라는 양 대학·교육부의 수용 여부 관건=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이루기까지

지난주 실무진 만나 통합 협의 양 대학 총장 체제 유지 조건 의대 설립 등 마찰·갈등 없게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갖추고 지역 인재 양성기관 거듭나야

는 갈 길이 멀다. 가장 먼저 양 대학 내 구성원들의 합의다. 대학 통합은 필수적으로 중복 대학·학과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엄격하게 통합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양 대학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전망이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전제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고, 무엇보다 교육부가 양 대학의 통합 거부반스, 그리고 논의 과정을 인정해 줄 것이 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대학은 우선 현재의 양 대학 총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부·학과 구조조정을 최대한 연기 또는 최소 수준 진행 등의 조건을 내거는 ‘느슨한 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대 설립 대학 등에서 마찰·갈등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있다.

국립 의대 유지를 위해 양 대학이 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그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다. 일단 양 대학 실무진이 만났고, 앞으로 교육부와 의대 본격적인 협의도 예정되어 있어 통합을 이루기 위해 양 대학이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개교 78년 목포대·89년 순천대 지역민에 희망 안겨야’=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목포대와 순천대는 모두 최근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며 미래 경쟁력을 갖춘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또 전남도민의 열원인 국립 의대를 대학 통합으로 유지해낼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전남도의 오랜 지역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위대한 결단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목포대는 1946년 세워진 6년제 목포사범학교가, 순천대는 1935년에 설립된 순천공립농업학교를 그 전신으로 하고 있다. 각각 78년과 89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남의 자원이자 인재 양성 기관이다.

양 대학이 통합을 통해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할 시점에 왔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학 구성원들의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하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한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 포문(붉은 점선)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 北 “국경 부근 8개 포병여단 사격대기 태세 전환”

### 남북, 군사 긴장 상태 고조

북한이 국경선 부근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춘 데 대응해 합동참모본부는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하면서 남북 간 긴장 태세가 고조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합참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참 측은 “우리 군의 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가 상향됐느냐는 질의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구체

적인 (작전)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여러 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함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

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 총참모부의 이런 지시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전 국감, 적자 43조원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 쟁점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나주시 빛가람 동 한국전력공사(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누적적자만 43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관련기사 8면〉

이날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위원, 박지혜 위원, 장철민 위원 등 17명과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민 위원, 김성원 위원, 나경원 위원 등 11명,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 무소속 김중민 위원 등 총 30명의 감사위원과 김동철 한전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원자재 원가를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기업들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2022년 내세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20조9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지속 이행하고,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통한 전력 구입비 절감 등 자구 노력도 지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 사장은 한전이 지난 2022-2023년, 본사 조직 축소 및 임직원 임금 반납 등을 통해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했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되면서 현재 연결기준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3조원 등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5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역마진’ 구조는 해소됐지만,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AI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개발 및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가 송배전망 등 국내 전력 인프라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요금 추가 인상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총공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당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청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저부하 고효율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